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창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총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창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1월의 '들녘에서'



가을 들녘에는 인내(忍耐)가 있습니다.

봄날의 목마름

한 여름의 열기

거센 비바람 마저 견디어낸

역척스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곳엔 거둬들일 믿음도 있습니다

씨뿌리면 싹이 나고

물주면 꽃피는,

어떤 능력, 어떤 재주가 아닌

천부(天賦)가 베푸시는 흔들림 없는 소망(所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당신!

인내를 주셨사오나(딤후 1:16)

나는 사랑을 얻었고(요일 4:10),

사랑을 주셨사오나(요 13:34)

나는 인내를 소유하나이다(눅 21:19),

마침내

믿음은 꽃을 피워 천국을 열고

소망은 무르익어 그곳에 이르게 하옵나니

나의 들녘에 우뚝 선 당신의 십자가.

그 거친 나무에서

나는

없었던 영생을 거두어들이나이다.

문지방으로 밟밋함이 넘나드는 가을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영생의 열매에 대하여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못 영혼들을 거두어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하늘의 곡간에 채워지는 영혼들로 인하여 기뻐하실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2년 11월을 열면서 위임목사 김 성 관

창세기 서론

성경 첫 권을 장식하는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즉 시작과 기원의 책인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기사(記事)를 통하여(1-11장)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주 만물의 생성,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언어의 분산 및 종족의 발전 등을 보여주며, 소명(召命)과 언약의 기사를 통하여(12-50장) 선민(選民)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보여 준다.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은 유대인들의 전통인 책의 맨 처음 나오는 첫 단어인 ‘베레쉬트’(태초에)를 따서 이 책의 제목을 삼았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도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본 서의 제목을 ‘베레쉬트’라고 하였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역에서는 본 서의 제목을 ‘계보, 세대, 기원, 출생’을 뜻하는 ‘게네시스’라고 불임으로서 이 제목을 따라 구미 각국의 역본들이 이 제목을 따랐는데 한글 성경의 ‘창세기(創世記, Genesis)’도 바로 이 70인역의 제목을 따랐다. 오경(五經)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 서의 저자 역시 모세이다. 이 책의 저자로 모세보다 믿을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는 애굽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출애굽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본 서를 바로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본 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본 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우주 만물 및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하였다. 둘째, 구체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이 애굽으로 내려가 신정국가(神政國家)를 형성하게 되는 준비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보여 주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셋째, 더욱 중요한 기록 목적은 무(無)에서 유(有)으로 생명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죄악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새 생명으로 이끌어 내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인간들을 여

인의 후손(창 3:1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서는 일반적 예언으로부터 출발하여 특수한 예언으로 나아가는 이른바 메시아 사상에 관한 점진적인 계시의 특성을 띠고 있다. 본 서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형통적으로 여자의 후손(3:15), 셋의 계열(4:25), 셈의 후손(9:27), 아브라함의 씨(12:3; 22:18), 이삭의 후손(21:12), 야곱의 후손(25:23),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49:10)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본 서의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예표적으로 발견된다. 즉 창조의 으뜸인 아담은 장차 새 창조의 머리로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表象)이다(롬5:14).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사건(3:21)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들이 칭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계시이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면면하게 인간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내용분해

1. 태초의 역사(1:1-11:32)

- 1) 천지창조(1:1-2:25)
- 2) 인간의 범죄(3:1-24)
- 3) 인간 사회의 시작(4:1-5:32)
- 4) 노아의 역사와 바벨탑 사건(6:1-11:32)

2. 족장들의 역사(12:1-50:26)

- 1) 아브라함의 역사(12:1-25:11)
- 2) 이삭의 역사(25:12-26:35)
- 3) 야곱의 역사(27:1-35:29)
- 4) 요셉의 역사(36:1-43)
- 5) 요셉의 역사(37:1-50:26)

하나님께서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만드시고 에덴동산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자상한 배려를 하셨지만 인간은 그 행복을 상실하고 오늘날과 같은 슬픔과 고통아래 놓인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말 잘 듣는 애완 동물이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책임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이 같은 인간에게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5절) 독립된 초월적 존재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지 않겠느냐고 유혹합니다.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 세상에 타락과 죽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혹은 욕심에 미혹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타락하여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린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9절).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을 때, 왜 아벨의 제사는 열납되고 자신의 제사는 열납되지 않았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분한 생각부터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안색이 변함은 어쩔이뇨?' (6절) 하고 물으신 것은 '네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가인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성은 마침내 아벨을 죽이고도 자신의 범죄를 계속 부인하는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10절)는 준엄한 목소리로 아벨을 죽인 행위가 죄악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반항과 불평이고 형벌에 대한 절망과 탄식입니다(13절).

이러한 죄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고, '확증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처럼 인간은 스스로 용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누구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5).

기도 제목 / ① 어리석은 죄로 고통 당하지 않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므두셀라 처럼 969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두 죽고, 죽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5장의 숫자를 잘 살펴보면 에녹이 승천하기까지 죽은 사람은 아벨 외에 단 한사람 아담뿐입니다. 이는 인간의 범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녹의 승천 사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아래 놓여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산다는 귀한 진리를 예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롬6:23). 인간은 결국 다 죽었는데, 에녹 한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여주셨습니다. 에녹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음을 알고, 믿는 자는 참으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 비추는 한줄기 빛처럼, 죄악 속에서 죽어 가는 이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에녹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 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6장을 한눈에 살펴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악의 세력이 세상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8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은혜를 경험한 노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죄와 은혜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땅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악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들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지창조의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되는 일만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3절) 고 표현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행동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노아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죄는 지금도 온 땅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침내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꽃피워 갈 씨들을 긴급히 마련된 구원의 방주에 대피시킨 후에 40주야 동안 비를 내려 이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물 속에서 죽어 가는 시간에 물위에 떠오른 방주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1절)는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부르시고 동물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순결한 영혼은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으며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 만큼이나 크지만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았지만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지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청은 제한된 사람에게,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만 허용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생명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생명의 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잔치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아 때처럼 죽음과 생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노아는 일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서 나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노아의 행동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 밖을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밭도 만들고 집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의, 식, 주를 이야기하거나 평안과 사랑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아무것도 없다 해도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들인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일의 앞 뒤 순서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먼저 만들고, 우물을 팔 때는 석축을 쌓으면서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기사에 이어, 6-9장이 종결되는 본 장에서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일어난 대홍수가 종결되게 됩니다. 오직 당대 의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전반부 1-7절은 대홍수 사건이 종결된 시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은 다시 창조 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확인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중반부 8-17절은 인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맺으시되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18-19절은 대홍수 이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범한 사실과 이에 대한 그의 세 아들의 상반된 반응에 따라 그 후손들의 장래가 예언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던 노아가 실수하는 사건을 통하여 인류 시조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아무도 없으며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는 최악의 씨가 자리잡고 있다는, 실로 통탄스러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는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기도 제목 / ①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및 대홍수를 통한 심판 기사에 이어 민족들의 기원과 분산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대로 실제적으로 인류가 급속히 번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1-5절에는 야벳 후손의 명단이 나오고, 중반부 6-20절에는 함 후손의 명단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21-32절에는 셈 후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러한 계보는 인류의 번성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조상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혹자가 오해하듯이 편협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혹자가 말하듯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국수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로 모든 인류를 그 대상으로 하여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하신 말씀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속되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초기의 장구한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 장 후반부(27-32절)를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 전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을 예고하는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장은 역사전 시대와 역사 시대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9절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쌓았던 그 유명한 바벨탑 건축기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그 때까지 통일되어 있었던 언어가 혼잡케 되어 인류가 온 지면으로 흩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10-26절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란 축복이 주어진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밝힘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인물이 나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7-32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람의 가계(家系)를 좀 더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하여 인간이 경험하고 목격하는 역사의 저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여 오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고 담대히 죄악 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살후3:13).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게 하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셈 계통의 한 가계를 특별히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족장사(族長史)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즉, 필연적으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시므로 복의 근원이 될 가계를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사건이 기록됨으로써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시조인 아브람이 택한 민족의 조상으로 소명 받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6-9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람의 결연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반면 10-20절은 아브람이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래를 누이라 거짓말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본 장이 지닌 구속사적 의의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은혜로운 선택과 구원의 보편성 때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실로 감격하며 소리 높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으며,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던 아브람조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단이 믿는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잊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애굽에서 아브람이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아브람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부상하여 신앙의 조상으로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13절은 아브람과 롯이 분리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람과 조카 롯은 육축이 많아졌으므로 그 일꾼들에게서 잦은 분쟁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브람은 롯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후반부 14-18절은 신앙적 결단을 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며 그의 후손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람에게 거듭 자손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아브람에게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조상이며 신앙의 조상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 장은 구약 구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그 혈통을 보호하며 그들이 기거할 땅을 보장해 주실 것에 대해 예언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향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브람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은 선택하는 삶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일생에 다가오는 많은 선택들을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아브람이, 성경에 나오는 첫 전쟁 기사인 가나안 남북 전쟁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구할 뿐 아니라 혁혁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급속도로 번성하며 새로운 실세로 자리 잡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화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전반부 1-12절은 가나안 남부지역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맹주로 하는 북방 네 왕의 공격을 받아 대패한 것과 재물에 큰 집착을 보였던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13-16절에서는 아브람이 즉각 자신의 군대를 모아 북방 왕들을 기습하여 롯과 약탈당한 재물을 찾아온 사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7-20절은 개선한 아브람에 대한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21-24절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고 제의할 때, 이를 거부하는 아브람의 청렴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동맹하여 그 힘이 막강했고 게다가 나그네인 아브람은 큰 소리 칠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 있게 구축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평소의 준비에서 온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란 구절이 그의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영적으로 준비성 있는 삶을 살 때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기도 제목 / ① 항상 깨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하심으로 구속의 일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갈대아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12장 2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더 확장된 약속을(5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실 것을 쯔겐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17절) 되셔서 지나시는 것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본 장에서 드디어 아브람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12장에서의 약속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정합니다(2, 3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브람의 몸에서 난 자가 후손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보여 주십니다(4, 5절). 그러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원리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과 5장을 통하여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자기의 경건한 삶으로 자기 상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죄에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그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칭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행위와 삶이 아니라, 오직 의롭다 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브람과 사래는 믿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브람과 사래는 조금함을 불신앙으로 드러냅니다. 그 방법은 사래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지극히 불신앙적인 방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여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래를 멸시하고(4절), 사래는 그 여종을 이제 그의 처소에서 쫓아버립니다(6절). 인간의 죄는 죄를 더하게 하며 고통을 고통으로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고통만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람에게 속해있던 그 여종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10,11절). 여기에서 아브람과 사래의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을 무효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보존하십니다. 또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람을 위하여 하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위하여 그 모든 것까지도 오직 은혜로 다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진노의 잔을 쏟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신이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 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브람의 믿음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난 후 또 다시 13년이나 홀려가 버렸습니다(1절, 16:16).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15장에서의 언약을 보다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을 맺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8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람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1절)입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요일 1:7)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의 씨가 열국에 이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19절) 칭하여 주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위하여 할례를 시행하여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12-14절).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그 언약은 언약으로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구원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약속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언약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삿6:19)과 삼손의 부모(삿13:15)들도 가졌고, 그들은 그것을 잘 준비하여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5:40). 결국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없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10절). 그러나 사라는 웃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밝히시면서(14절), 재 약속을 하십니다. 소동을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16-32절).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벗과 같이 감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의와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십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늘 이런 교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늘 거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십자가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입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주도권을 맡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의 길을 떠난 육신의 사람 롯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에덴 같은 넓은 들에서 가장 작은 동굴 속 주인공으로 마치고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롯은 두 손님을 자기의 집에 묵고 가라고 강권합니다(3절). 그리고 자신의 두 딸들의 희생을 결심하면서까지 두 손님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모습을 소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9절). 그리고 그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버렸습니다(14절). 결국 전적인 은혜로 그곳을 나오게 되지만 역시 그도 그곳 사람이었습니다(15-20절). 또한 두려움에 싸인 모습(19, 3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계속된 중보 기도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29절).

오늘의 현실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죽음의 질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중보자 예수와 더불어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롬13:11).

기도 제목 / ① 주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저지른 실수를 다시 저지릅니다.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나 그와 비슷한 심한 감정의 동요가 생길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있으면 인생의 두려움이 항상 밀려오게 되는 것을 13절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라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2절). 그는 유약한 인간이었습니다(13절). 그렇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6,7절). 아비멜렉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아셨고 그와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그가 행한 일의 결과에서 건지셨습니다(18절).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지한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 등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위대한 사역 이후에 항상 자기 시험에 빠져 낙담과 실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늘 경성하며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순간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고백과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기부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강건한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심을 기록합니다. 1-21절에서 선민언약에 의한 첫 후손인 이삭의 출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8-21절에서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육적 자녀인 이스마엘과의 엄정한 분리가 초래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의한 첫 후손인 이삭이 마침내 출생했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주어지고 25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은 후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소망이 끊어져 가능성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단순한 아브라함 가정의 경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약속의 성취로서 언약의 첫 열매의 구속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만인의 구세주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삭(웃음이란 뜻)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웃음이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언의 웃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히 찬송을 불러야 할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며, 예수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전하여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삭의 희생제사 사건입니다. 아들을 죽여 버치라는 두려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처절한 갈등과 위기를 초래합니다(1-10 절). 그러나 그 위기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11-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좇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묶어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창 21:1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창 22:5절).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확신했기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것도 버릴 각오가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라의 죽음과 장례기사의 초점은 한 자연인으로서 사라의 죽음보다 그녀가 언약 가문의 첫 어머니로서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기록되었지만 그녀가 묻힌 약속의 땅에 대한 언급이 본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나이였습니다. 사라는 이제 지상의 가나안을 떠나 하늘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숭한 위기를 맞았고, 아브라함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서 장지를 구입하였습니다(3-18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장차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 땅에 인을 친 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의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장지를 위해 극히 일부분의 땅을 구입하였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았고, 또한 자신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며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노쇠함으로 구속사의 무대에서 한 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늙은 종을 파견(1-9절), 늙은 종의 리브가 상봉(10-60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61-67절) 등을 보여주는 이삭의 결혼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실한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2-3절). 이삭의 결혼을 위해 자기의 고향,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충실한 노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순전히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우물에서 한 소녀를 만나서 물을 달라하면 그녀가 나에게 주고, 또한 나의 약대들에게도 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메고 나왔습니다. 늙은 종이 리브라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즉시 물을 주고 그의 약대들에게도 일일이 물을 길어와서 먹였습니다. 그 소녀는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종을 인도하여 순전히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사자를 보내셔서 종을 인도하여 나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결혼도 친히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가게 하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브라함의 임종이 가까울 때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과 서자들의 죽보가 일단 정리되었습니다(1-18절). 이는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인정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19-34절).

이삭을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22절). 그런데 이 둘이 태에서 서로 싸웁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큰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인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인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오다가 배가 심히 고파서 동생에게 팔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형의 권리를 팔았습니다(32-33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영적인 신령한 권리를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게 하소서. ② 최은아 단기평신도선교사(스리랑카)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삭의 주요행적은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1-5절), 아버지와 동일한 실수의 체험(6-11절), 가문의 번창과 토착세력과의 동맹(12-22절),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나타난 이웃에 대한 겸손(23-25절)이 나옵니다.

이삭이 살고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2-4절).

이삭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흉년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에서 농사하여 수확을 그 해 백 배나 얻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사람들이 시기하여 쫓아냈으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샘을 얻었습니다. 그란 목자들이 또 시기하여 샘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24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닥쳐도 환경을 보지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말씀을 좇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② 협력선교사(이 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저자는 '나' 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영적 이기주의를 고발하며 그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가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이기주의는 가족들을 묶는 사랑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결국에는 이삭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 가정의 불행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장막에 거하며 자신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25:28). 부부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자를 향해 사랑이 아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거래를 함으로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 합니다(27:4). 그러나 이삭이 장자의 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떠올리며 심히 떴니다(33절). 영적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만듭니다. 비록 야곱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리브가 역시 '나' 중심에서 비롯된 '자기 노력' 으로 야곱에게 복 주려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영적 이기주의를 낳고, 영적 이기주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만듦으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나 중심' 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의 신앙생활로 영적 이기주의를 깨뜨립시다.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 보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제 삶의 중심에서 제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히브리서가 이삭의 믿음에 대해 평가할 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히 11:20). 그러나 우리가 27장에서 본 이삭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야곱을 다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의 평가는 28장에 나오는 이삭의 두 번째 축복(3~4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3~4절에서 이삭은 27장에서 빌었던 ‘땅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재축복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가진 재산을 물려줌으로 얻게 될 ‘땅의 복’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적은 음식(20절)만 챙겨서 밧단아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훗날의 사건을 보면 장자가 받는 유산은 에서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받은 복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이삭이 빌어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야곱에게 한 톨의 유산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에 눈을 떴듯이 우리도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빌어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땅의 복을 사랑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낯선 땅에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피붙이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6절). 혹시나 그 친척이 자신을 버리거나 앓을까 하여 목자들이 세워놓은 우물에 대한 규례까지 무시하며(8,10절) 라헬의 환심을 사려고 돈을 옮기고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외로움의 끝에 만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보고 야곱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라헬을 사랑하게 된 야곱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의 세월을 기꺼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 은 10세겔 정도인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보통 30~40세겔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3~4년 정도만 봉사하면 충분했지만 야곱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야곱은 그 7년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20절). 야곱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주었으며 그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7년이 아니라 33년 동안 그분의 온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담당하셨습니다(요17:13).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입술만의 전도가 아닌 희생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희생과 사랑 없이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선교와 전도의 일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과 사랑을 쏟아 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심지어 침실권까지 쥐고 있던(15절) 라헬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29:31) 못생긴 레아는 열 두 아들의 절반인 여섯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당시 유행하던 고대 근동지방의 방법대로 하인을 통하여 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레아와 경쟁하여 이기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8절). 라헬은 분명 아리따운 외모와 지체로운 일처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29:17). 반면 레아는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총기가 떨어져서 양치는 것조차 맡길 수 없는 바보로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잘 생긴 외모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침실권까지 쥐고 있던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던 라헬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자신과 같이 잘난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멍청한 레아가 자식을 갖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6절). 라헬은 요셉을 낳았을 때에도 그 넘치는 욕심을 드러냈습니다(24절). 반면 레아는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야곱에게 하인을 주었습니다(9,18절).

라헬처럼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천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보는 자는 주님을 갈급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용납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가난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듯이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시고 베푸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김 받고자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야곱에게 품삷을 주지 않기 위해 라반은 얼룩과 점 있는 것들을 사흘 길이나 먼 곳에 옮겨 놓았습니다(30:36). 그러나 야곱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양 떼 앞에 둬서 양 떼의 임신을 조절하려 했습니다(30:38). 야곱은 이러한 노력으로 양 떼의 몸의 색깔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30:41-42).

그러나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시기한 라반은 이제 처음 약속을 바꾸어 야곱의 소유가 될 양들의 조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31:7). 처음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모두가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라 했지만 나중에는 점 있는 것만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바꿉니다. 야곱은 자신이 했던 나무껍질 방법이 이제 소용이 없을 것을 알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하자 그 다음부터 양들은 모두 점 있는 것만 태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열 번이나 조건을 임의로 바꾸었지만 양들은 오히려 라반의 제시한 조건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때에야 야곱은 자신의 나무껍질 노력에 의해 양 떼의 색깔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9~12절). 과거 라반의 양들이 번성한 것도 야곱의 양치는 기술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땀 흘려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라반과 같은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복수를 위해 사백 인을 준비합니다(5절).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지키려고 피를 냅니다(7~8절). 그리고 난 후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9절).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여전히 자신의 피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 가지 환란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지 그의 삶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피를 냅니다(13~20절). 이러한 야곱이 압복강에서 위골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평생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피로 사는 '속이는 자(야곱)'가 아닌 하나님과 기도하여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이스라엘)'가 되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곱처럼 먼저 인간적인 수단을 다 펼쳐 놓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먼저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그분을 만나면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결 방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줍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려움 앞에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전 11:2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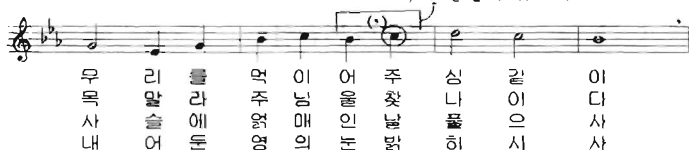
*이 찬송은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갖고 부드럽게 이어서 찬송합니다.
(무거운 느낌이나 지나치게 느린 램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 빠르게 ♩ = 100

가사의 발음 분명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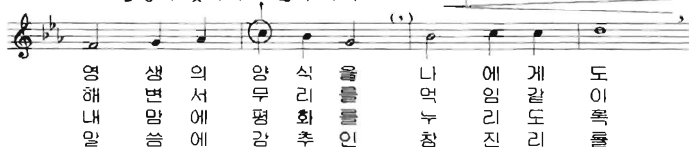


가사의 운율에 유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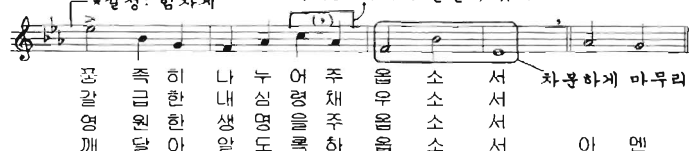
점점 세게 찬송하며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음정이 낮아지지 않게 주의



*절정: 힘차게

여기도 가사의 운율에 유의



차분하게 마무리

들어가면서(서론)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성찬식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11장17절~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연합과 교제를 위한 그들의 성만찬 모임은 유익하지 못했고(17절), 분쟁이 있었으며(18절), 편당이 지어졌고(19절),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허기지거나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21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며(22절a),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22절b).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과 인간적인 요소만이 남은 예식으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를 고린도전서 23절~26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고(23절),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며(24절),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고(25절), 주의 죽으심을 재림의 순간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26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성만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말씀은 오늘날 아무런 의미도 두지않고 생각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경각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
- ② 성찬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전서 11장27절~34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 함으로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27절 - '합당치 않게' (이것은 무슨 뜻인가?)

② 28절 - '자기를 살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③ 29절 - '분변치 못하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④ 30절 - '이러므로' (잘못된 성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⑤ 31절~32절-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⑥ 33절~34절 - 서로 기다리라(왜 기다려야 하는가?)

2. 다음주일 설교('그리스도의 식탁에서')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의 단원을 읽은 후, 주께서 성찬을 가장 처음으로 베푸시던 때의 분위기와 상황의 전개, 주님의 말씀 등을 말해 보십시오.

② '죄' (Sin)의 단원을 읽은 후, 성만찬을 죄의 문제와 연관하여 말해 보십시오.

③ '불평' (Grumbles)의 단원을 읽은 후, 성만찬을 불평의 문제와 연관하여 말해 보십시오.

④ '비통' (Bitterness)의 단원을 읽은 후, 성만찬을 비통의 문제와 연관하여 말해 보십시오.

⑤ '무거운 짐' (Burdens)의 단원을 읽은 후, 성만찬을 무거운 짐의 문제와 연관하여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주의 식탁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죄와 불평과 비통함,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의 식탁으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쏟아놓아야 할 죄와 불평, 비통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번 주일 성찬의 식탁에서 나의 모든 수치를 내려놓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③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거듭나게 하소서.

제목:

본문:

제 2 과

감사하는 자

• 찬송 / 4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 본문 / 눅 17:11~19

못갖춘 마디입니다. 여리게 시작해서
강박으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찬송하세요.

조금 빠르게 ♩ = 100 음정이 떨어지지 않게

1. 아 하 나 님 의 은 혜 로 이 쓸 데 없 는 자
2. 왜 내 게 굳 센 믿 음 과 또 복 음 주 서 서
3. 왜 내 게 성 령 주 서 서 내 맘 을 감 동 해
4. 주 언 제 감 림 하 실 지 혹 밤 에 흑 낮 에

음표 하나하나를 잘 살려서 찬송합니다.

특히 이 부분의 음정 조심

왜 구 속 하 여 주 는 지 난 알 수 없 도 다
내 맘 이 환 상 편 한 지 난 알 수 없 도 다
주 예 수 믿 게 하 는 지 난 알 수 없 도 다
또 주 님 만 날 그 곳 도 난 알 수 없 도 다

여기서부터 4째 단 까지 이 찬송의 절정 부분입니다. 간절 하면서도 힘있게 찬송합니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 지 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가사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고 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 하듯 예쁘고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찬송해 보세요.

끝까지 힘을 잃지 말고

늘 돌 보 아 주 실 것 을 나 는 확 실 히 아 네

들어가면서(서론)

성경은 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 일까요(대상 16:34, 시 136:26, 골 3:17, 살전 5:18)? 그것은 감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기준과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정해놓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감사하며, 내가 만족해야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주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했던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보다 병을 고치신 예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성경에서 주께 감사드린 사람들
- ② 믿음과 감사의 관계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17장11절~19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1절~13절 - '문둥병자 열 명(이들이 처한 상황과 모습은?)

② 14절 -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은 과정은?)

③ 15절~16절 - '그 중에 하나' (왜 한 사람만이 감사했는가?)

④ 17절~18절 - '그 아홉은(아홉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⑤ 19절 - '네 믿음' (믿음과 구원과 감사의 관계는?)

2. 다음주일 설교('감사하는 자')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다윗'의 단원을 읽은 후, 그가 드린 감사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참된 감사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② '다니엘'의 단원을 읽은 후, 그가 드린 감사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참된 감사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③ '베드로와 사도들'의 단원을 읽은 후, 그들이 드린 감사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참된 감사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④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단원을 읽은 후, 이들이 드린 감사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참된 감사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⑤ '믿음과 순종에 따른 응답'의 단원을 읽은 후,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말해 보십시오.

⑥ '감사하는 한 사람'의 단원을 읽은 후, 왜 유난히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를 드렸는지 말해 보십시오(모든 가능성을 말해 보십시오).

⑦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왜 나머지 아홉 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지 않았는지 말해 보십시오(모든 가능성들을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면(좋거나 나쁘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감사의 조건이 오직 주님에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게 해 주소서.
- ③ 못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한글

한글 명곡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한글 명곡 1집 / 동행 : (이)오 남호 명곡 1집 88년 / 송화



제 3 과

참된 감사

• 찬송 / 468장(내 맘에 한 노래 있어) • 본문 / 눅 18:11~14

*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8분의 6박자로 선율에 실어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찬송입니다. 한 마디를 두박자로 해 등실등실 하는 느낌으로 찬송해 보세요.

이 곡 역시 못갖춘 마디이므로
여리게 시작해서 강박으로 이어지는
표현을 해주세요.

이와 같은 부침(점음표) 리듬
즐겁고 평안한 감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 = 60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놀 부르네
2.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3.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총만 하도다
4.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다음 단을 향하여 감정
고조시켜 갑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임 하도다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 하나님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한결음 한결음씩 전진해
가는 느낌으로

품성한 느낌으로 기쁘게 찬송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감탄사!

거의 음절 변화가 없는 선율이지
감정을 듬뿍 담아서 찬송해 보세요



오 크 고 놀 라 운 평 화 하 나 님 선 물 일 세

들어가면서(서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재산,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행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날씨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깁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처럼 특별한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자신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1절이 말해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 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8~10절). 이 시인은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주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참된 감사에 대하여
- ② 참된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18장11절~14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 함으로 본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9절 - '이 비유'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② 10절 - '두 사람' (각각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③ 11절~12절 - '서서 따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과 태도는?)

④ 13절 - '멀리 서서' (세리의 기도 내용과 태도는?)

⑤ 14절 - '무릇' (예수의 역설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2. 다음주일 설교(‘참된 감사’)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두 사람’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②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왜 바리새인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지 말해 보십시오(신앙과 행위의 관계).

③ ‘감사하는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바리새인이 감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감사와 은혜의 관계).

④ ‘변화되지 않은 채’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만일 바리새인이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말해 보십시오(그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⑤ ‘세리의 회개와 변화’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왜 세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지도 말해 보십시오(죄와 은혜의 문제).

나가면서(결론)

1. '참된 감사'는 '진정한 죄의 고백'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감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신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도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죄와 용서와 그리고 구원과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을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한 달에 몇 번입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세상의 것들로 감사의 조건을 삼지 않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소서.

제목:

본문:

제 4 과

그리스도인의 삶

• 찬송 / 342장(어려운 일 당할 때) • 본문 / 딤후 4:1~5

*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에,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듯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8분의 6박자의 선율에 실려 잘 표현된 찬송입니다.

조금 느리게 ♩ = 60

한 마디를 두박으로 하는 8분의 6박자의 리듬은
주님 품안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줍니다.

음정 분명히

1. 어 려 운 일 당 할 때 나 의 믿 음 적 으 나
2. 성 령 께 서 내 맘 에 밝 히 비 취 주 시 네
3. 밝 을 때 에 노 래 며 어 둘 때 에 기 도 와
4. 생 명 있 을 동 안 에 예 수 의 지 함 니 다

음정 분명히 하면서 점점 크게

의 지 하 는 내 주 를 더 욱 의 지 함 니 다
인 도 하 심 따 라 서 주 만 의 지 함 니 다
위 태 할 때 도 움 을 주 께 간 구 함 니 다
천 국 을 라 가 도 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주 령 8분의 6박자의 '등실등실'하는 느낌을 더욱 강조하여서
힘있게 찬송하여 갑니다.

세 월 지 나 갈 수 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굳건한 의지를 담은 믿음의 고백!

아 무 일 을 만 나 도 예 수 의 지 함 니 다

들어가면서(서론)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생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임종을 앞두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죽기 싫어서 몸부림 칠 것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재산 상속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멋지게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언급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재물,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 생전에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어서, 자신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자신이 해오던 일을 계속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
- ②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디모데후서 4장1절~5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절 - '엄히 명하노니' (명령의 근거는 무엇인가?)

② 2절 - '너는' (말씀에 대한 명령은?)

③ 3절~4절 - '때가 이르리니' (종말에,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④ 5절 - '그러나 너는' (세상에 대한 태도는?)

2. 다음주일 설교('그리스도인의 삶')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세상과 투쟁하는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② '고난받는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긍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딤후 2:3).

③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만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해보십시오.

④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어떤지 말해 보십시오.

⑤ '배푸는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그리스도인들이 배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어떤지 말해 보십시오.

-
- ⑥ '말씀만을 전하는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시간과 장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입니까?).

- ⑦ '이기적이지 않은 삶'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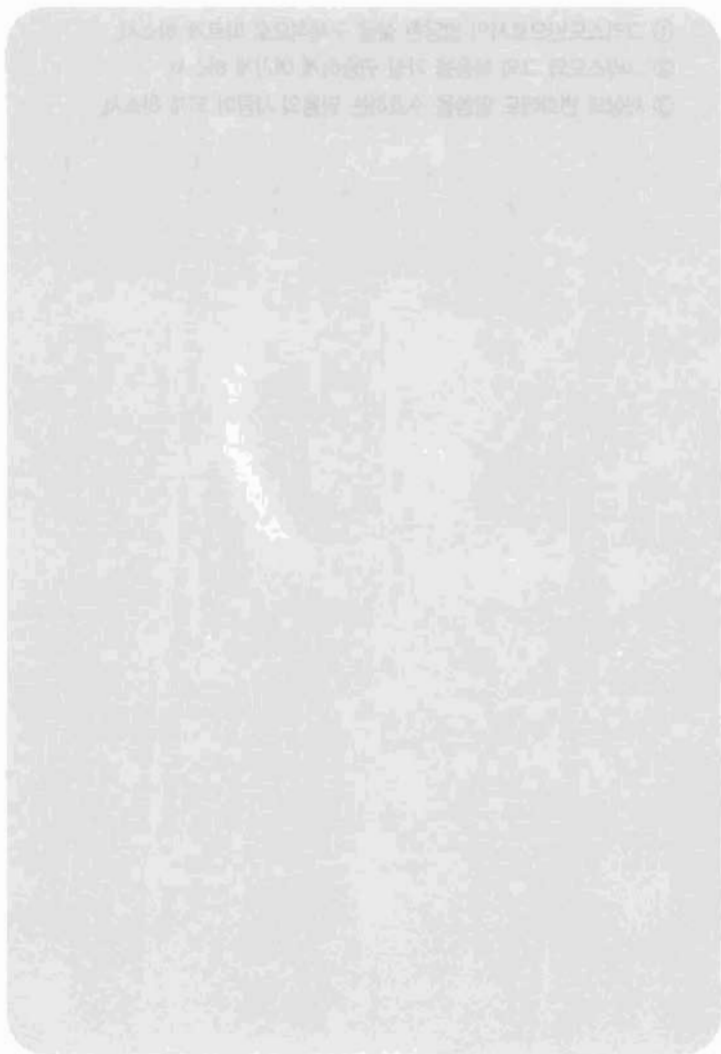
1.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유언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유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대신에 세상적인 유언이나 들으려는 사람들이 당신의 주위로 모여들게 되지는 않을까요? 만일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지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따르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 ③ 세상의 변화에도 말씀을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목:

본문:



제 5 과

칠 일 이후에

• 찬송 / 491장(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 본문 / 창 7:1~16

C. H. Græne
모듬으로 $\text{♩} = 92$

박자를 정확히

1. 귀 하 신 친구 내게 계 시 니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2. 주 내 징 대 신 지 시 었 으 니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3. 주 은 종 매 일 내 게 더 하 네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고 정확하게

나는 작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심정으로

그 피 가 내 죄 씻 으 셧 으 니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그 생 명 버 려 나 를 구 했 네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저 악 한 죄 길 에서 지 키 네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후렴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조금 느리게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자신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주 나 와 늘 동 행 하 시 니 나 주안 에 놀 기 뻔 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담긴 마음으로

잠시 끊었다가

천천히 그 은혜를 확신하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성경 본문은 노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인간의 악함은 극에 달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창 6:5)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6:13 참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칠 일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칠 일 이후에, 모든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칠 일이라는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긴 세월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일 백년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경고 받으면서도 듣지 않았던 인간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은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하여(언약의 신실성)
- ② 구원의 기회(구원의 유일성)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창세기 7장 1절~16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이해함으로 본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절~5절 - '칠 일이면' (for after seven more days)(이 기간은 노아와 그 가족과 세상에겐 어떤 의미를 주는가?)

② 6절~12절 - '칠 일 후에' (about after the seven days)(이 말은 노아와 그 가족과 세상에겐 어떤 의미를 주는가?)

③ 13절~16절 -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시니라' (the LORD closed [it] behind him)(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다음주일 설교('칠 일 이후')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

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문에 기록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말해보십시오(심판과 관련).

- ② '경고와 피할 길'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하나님께서 경고와 함께 구원의 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구속언약의 관점에서)?

- ③ '노아의 믿음'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그가 일 백년을 넘게 변함없이 방주를 짓기 위해 망치질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하나님과 조상과 관련시켜서).

- ④ '마지막 경고'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칠 일'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말해 보십시오(롬 13:12 참조).

- ⑤ '최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단원을 읽은 후, 니느웨 백성들처럼 돌이키는 자와 노아시대의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예들을 찾고, 벰후 3:3~7을 기초로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이 세상의 비(非)그리스도인 마저도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자라면, 또한 성경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 가지 마음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히 3:7). 노아 시대에 구원의 기회의 날들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바로 구원을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주의 안에 계십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보장할 방주는 무엇입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슬기로운 처녀처럼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 ② 인내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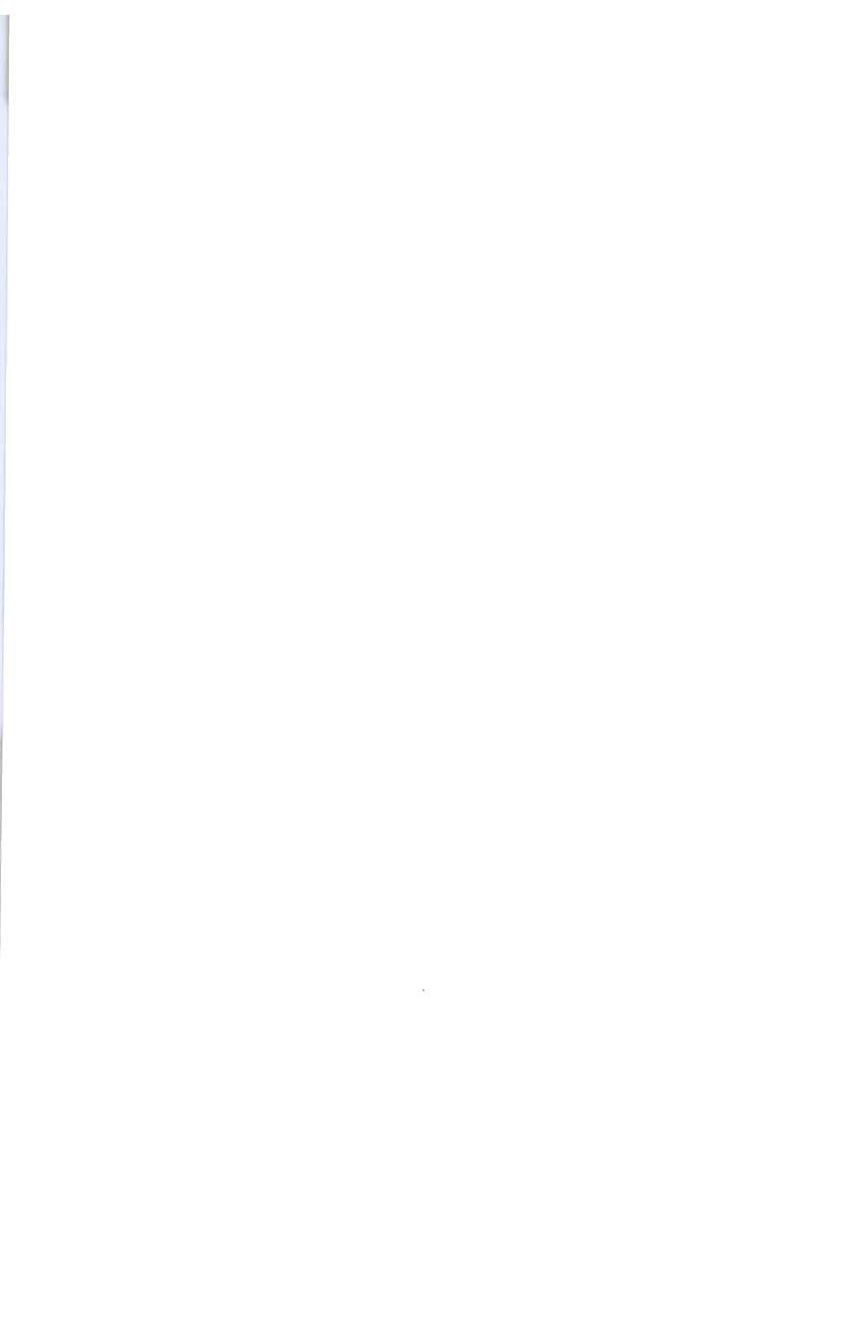
보통사람의 두뇌방심

보통사람의 두뇌

- 1. 두뇌의 구조와 기능
- 2. 두뇌의 발달과 성장
- 3. 두뇌의 정보처리 과정
- 4. 두뇌의 기억과 학습
- 5. 두뇌의 감정과 의지
- 6. 두뇌의 건강과 질병
- 7. 두뇌의 훈련과 개발
- 8. 두뇌의 미래와 전망

본서의 저자 : 박희준(박희준) : 서울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출판사 : 서울대학교 출판부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1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박인기(1-6일), 김황곤(7-12일), 위건량(13-18일),

김익환(19-24일), 김정수(25-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
